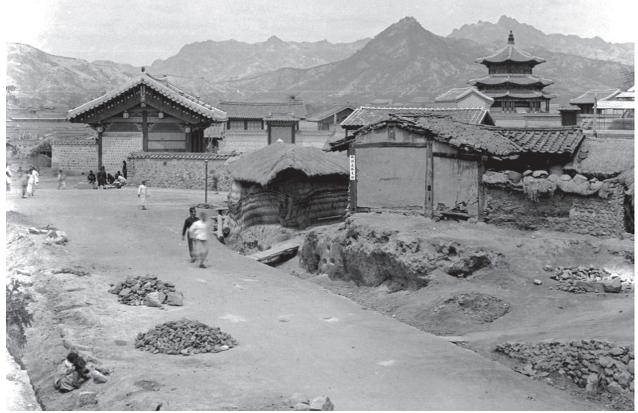


만인 10월 12일에 완성되었다.

환구단은 위상으로나 형태적으로 대한제국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이다. 조선 후기 학자 김윤식의 일기인 《속음청사(續陰晴史)》의 환구단제(圓丘壇祭)와 뒤텔 주교 일기에는 황제의 즉위식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환구단 정문과 소공로 도로공사(1901년경)

“아침에 비가 오다가 개이고 다시 저녁에 비가 내렸다. 금일 자각(오후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대가가 남별궁 환구단에 도착하였는데 단은 3층이다. 축각(오전 1시~3시 사이)에 천지에 제사하고, 인각(오전 3시~5시 사이)에 황제위에 오른 후 환궁하였다. 황후, 황태자를 차례로 책봉하였다.”<sup>12</sup>

1897년 당시에는 경운궁 동쪽의 포덕문을 나와서 우회하여 동쪽으로부터 환구단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1902년 경운궁 구역의 확장공사를 통하여 정전 영역과 어도가 확장되고, 동쪽의 대안문이 정문이 되고, 경운궁을 마주보고 환구단의 정문이 건설되었다.<sup>13</sup>

## 2) 명성황후의 장례와 신교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이후 명성황후의 국장이 행해지게 된다. 을미사변으로 왕후가 죽은 이후 7차례에 걸쳐 장례가 연기되다가,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황후로 추존되어 1897년 11월 22일(음력 10월 28일) 홍릉(洪陵)에 안장